

수도교회 어린이부 가정예배문(3/22)

1.기도

부모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00이와(어린이 이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00이가(어린이 이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세요.

어린이: 하나님,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부모님께서 들려줄 하나님 말씀이 기대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의(우리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다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끈 요셉

요셉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고, 곡식 값으로 받은 돈도 자루에 다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속에는 나의 은잔을 넣어 두어라.”

형제들이 도시를 거의 빠져나갔을 때 요셉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뒤쫓아 가라. 그들을 따라잡은 뒤, ‘왜 우리 물건을 훔쳐 갔습니까? 이 은잔은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물건입니다!’라고 말하거라.”

요셉의 신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뒤쫓아가 요셉이 알려 준 말을 그대로 했어요.

형제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시다!”

신하가 큰형부터 막내 동생 것까지 모든 자루를 뒤졌어요. 그러자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신하의 손에 이끌려 무척 괴로워하며 도시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신하를 시켜
형제들의 돈을
도로 넣어 두고
막내 동생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 제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어요.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잔을 가지고 있던 막내 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한 명만 이곳에 남아 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유다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물었지요. ‘아버지와 남동생이 있습니까?’라고요.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남동생의 형은 죽었고, 막내가 그 어머니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막내를 사랑하세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가나안에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곡식을 더 사 오라고 하셨을 때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 없이는 곡식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막내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너희들은 늙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낸 꼴이 될 것이다.’라고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께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세요. 막내 대신 제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슬픔을 못 이기고 돌아가실 게 분명해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가요?”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에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를 팔아 버렸다고 자책하지도 말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저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가서서 말씀드리세요. 당신의 아들인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저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고센에 살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고센에서 아버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살펴 드릴게요.’라고요.”

요셉은 형제인 베냐민에게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어요.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어요.

요셉이 정체를 밝힌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형제들이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요셉이 아직 살아 있어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수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슬픔에 잠겨 있던 야곱은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구나. 이제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보세요!



🍎 기도해요

- ✦ 지금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 ✦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 내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 실천해요

- ✦ 엄마나 아빠께 하나님이 어려운 일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신 적이 있었는지 여쭙어 보세요.
- ✦ 플라스틱 컵으로 컵 숨기기 놀이를 해 보세요.
가족 한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방 안에 컵을 숨겨요.
그 뒤 밖으로 나간 사람이 들어와 컵을 찾는 놀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술래가 컵 가까이 가면 “뜨거워요.”라고 하고,
컵이 멀리 있으면 “차가워요.”라고 속삭여 주세요.

3.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